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되나

유가·물가 불안 설비·투자 위축

韓銀 내년 성장률 4.7% 전망… 올 보다 낮춰

대외적 불확실성 고조·성장 동력 약화 우려

'5% 근처'가 될 것이라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4.7%로 소폭 낮춰져 제시됐다.

'4%대 중반'에 해당하는 4.7%의 성장률은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 추이를 감안할 때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장의 동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면서 선진국 문턱을 넘기도 전에 저성장세가 굳어지는 조로(早老)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짓눌린 한국 경제=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이 5% 근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7%를 '5% 근처'라고 우긴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4% 중반 쪽에 훨씬 가깝다.

한은 자신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을 낮춰 잡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7%로 전망하게 된 전제로 우선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5.1%에서 내년 4.6%로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의 진원지인 미국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 2.1%에서 1.8%로 하강하고 유로권 역시 올해 2.6%에서 내년 2.2%로 둔화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세계 교역 신장률이 올해 7.9%에서 내년에 7.3%로 둔화돼 한국의 수출 증가세에도 어느 정도의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고유가가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수출·소비가 성장 견인, 설비·건설투자는 부진=내년 상품수출 증가율은 10.3%로 올해 예상치 11.1%보다는 둔화되지만 두자릿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민간소비도 올해 4.4%에서 내년에는 4.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교역조건의 악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에 따른 '부의 효과'의 축소, 그리고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채무부담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내구소비재의 높은 판매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성장 기조로 진입 양상=2002년 신용카드 남발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성장률이 7.0%를 기록한 후 2003년에는 3.1%로 곤두박질쳤다. 2004년 4.7%로 나아진 후 2005년에는 4.2%로 둔화됐으며 2006년 5.0%를 나타냈다. 2007년 성장률은 4.8%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은 이보다 좀 더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5년 사이 성장률이 한 해가 좋으면 그 다음해는 낮아지고 다시 그 다음해에 반등하는 기조를 보였으나 올해와 내년에는 연속 하락하는 셈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5-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4.7%의 성장률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물가상승 압력 가중, 통화정책 운용 쉽지 않을 듯=내년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불안한 부분은 물가 상승률이다. 지난해 2.2%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5%에 이어 내년에는 3.3%로 앙등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 급등의 파급 효과와 등록금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이 대거 인상되면서 3.5%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4% 중반에 머무는 상황은 '경기 과열'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지만 물가가 급등하면 통화당국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해진다. /연합뉴스

올 1인당 국민소득 2만弗 넘는다

한은·LG경제연 분석

연 4~5%의 경제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무난히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연평균 원·달러 환율,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 추계인구(지난해 4천829만7천명) 등을 감안한 GD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을 2만60달러로 추산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GDP 디플레이터를 1.5%, 연평균 환율을 931원으로 각각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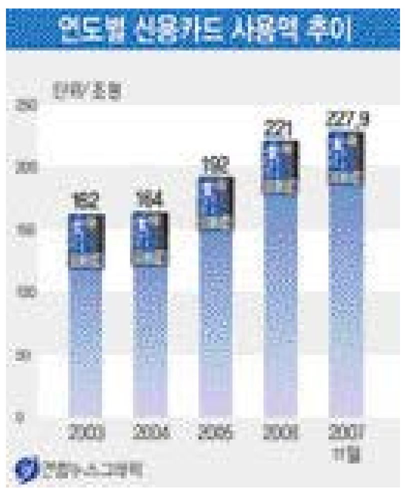
송태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언저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플레이터 상승으로 명목 GDP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더 높아지게 된다.

한은 역시 내부적으로는 올해 국민총소득(GNI)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1천432달러로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뒤 96년 1만2천197달러까지 높아졌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7천355달러로 곤두박질쳤고 2000년 1만841달러로 다시 1만달러를 회복했다. 이후 2002년 1만1천497달러, 2003년 1만2천717달러, 2004년 1만4천206달러, 2005년 1만6천413달러, 지난해 1만8천372달러로 꾸준히 상승했다. /연합뉴스

올 카드 사용액 250조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할 듯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조원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11월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의 국내 신용카드 신용판매액은 22조7천99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여신업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월별 기준 최고치다.

10월에 22조5천15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단 한달만에 최고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운 것이다. 11월 신용판매액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6.6%로 올 한해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2월에 신용판매액이 20조원만 넘기더라도 올 전체로 250조원 돌파는 무난해진다.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연말 효과가 부각되면서 월별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업계는 20조원 이상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연도별 신용판매액은 2003년 162조원, 2004년 164조원, 2005년 192조원, 2006년 221조원으로 증가해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올해 신용판매액이 250조원을 돌파한다면 각종 비공식 통계를 고려해볼 때 신용카드사들이 출범한 이후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축銀 영업구역 제한 완화

정부 75개 규제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 또 1만㎡ 미만의 공장 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 중 75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소재지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구역을 현재의 11개 권역에서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애로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온천이용업소표시(♨)는 지난 81년 온천법 제정 이전부터 목욕탕·여관 등에서도 사용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으나,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차별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온천표시를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사랑의 쌀 나눔' 현대·기아자동차그룹(대표 정몽구)은 5일 서울 양재동 농협 양곡유통센터에서 전국 18개 계열사 1만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쌀 나눔 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햅쌀 1만포대(4억2천만원) 전달에 나섰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쌀나눔 봉사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소외 이웃과 복지시설을 방문, 전달한다. /연합뉴스

19세 미만 청소년에 술 판매

백화점·대형마트 10곳 중 9곳

백화점과 대형마트 10곳 중 9곳은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6~18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서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64곳을 대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주류 구입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인 55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백화점의 경우 총 18곳 중 89%인 16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고, 대형마트는 46곳 중 39곳(85%)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시모는 "지난해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45곳 중 53%인 24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면서 "대기업 매장이 청소년 음주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내년 7월부터 '넙치' 대상 시범 실시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 재해 적용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가 내년 7월 넙치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과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수산·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양식수산물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대상은 양식수산·시설물이며 보상재해의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현상과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을 포함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보험대상품종이 육상수조식 넙치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도 태풍·폭풍·해일·적조와 이에 따른 수산질병으로 각각 한정되지만 향후 보험대상품종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이는 누구나 임의가입 형태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내년 국고에서 양식어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약 60%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해양부 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정해졌다.

2009년부터는 100억원 규모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 거대재해로 인한 대형손실이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재보험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주성호 수산정책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으로 현재 자연재해가 발생해 양식수산물이나 시설에 피해가 난 경우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상수준을 70~8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1년이상 거래없는 카드 탈퇴 쉬워진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용카드 회원의 탈회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나종규 회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한 탈회, 가입 때 연회비 징수,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에 대한 보상 등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내용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회원에게 탈회 의사를 묻고 이 때 고객이 동의하면 탈회 절차가 진행된다.

여신협회는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카드 탈회가 쉬워지고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소지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회장은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신금융사들의 업무 범위도 좀 더 확대돼야 한다"며 "현행 열거식인 업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와 조달금리 상승, 신용카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으로 카드사들의 경영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년 대졸 초임 연봉 3,093만원

올 보다 3.6% 증가…금융업 가장 많아

잡코리아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304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대졸 신입직 연봉을 설문한 결과 평균 3천93만원(성과급 제외)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500대 기업 중 413개사 평균인 2천985만원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 금융업의 대졸 초임 평균연봉이 3천61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선·중공업(3천584만원), 건설업(3천310만원), IT·정보통신(3천190만원), 석유·화학(3천164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섬유·의류(2천736만원)와 유통·무역업(2천845만원), 전기·전자(2천863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평균연봉이 낮았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C&S휘트니스그룹	경리 및 카운터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62-974-2006
㈜리바트	정규직 사무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62-941-6452
㈜시스네트 서비스	POS/PC분야 유지보수(A/S) 신입사원 - 광주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2-3397-3914
자연드리	웹프로그래머, PHP, 쇼핑몰 관리 및 수정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08	062-530-5302
㈜명정보기술	[광주]영업관리/경리, 영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43-218-8400
CKD Living	광주 영풍문고점 판매사원 (매장내 잡화 판매)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0	02-512-8685
㈜성진케미칼	임원수행비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2	062-943-8115
디케이산업㈜	인력개발전담자	대졸/경력1년	2000~2200	12/12	062-953-0885
자강산업㈜	자재관리직 경력 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2	062-956-6142
㈜필코스메틱	웹디자인 및 쇼핑몰 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12/13	062-267-8071
루펜리음식물건조기호남총판	[영업/재택/B2B]경력 및 신입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654-0630
현대기획	맥디자이너	초대졸/경력3년	1000~1200	12/14	062-226-8959
동방전기	전기도면 설계(autocad)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1-272-1066
㈜현대내자터미날	물류 유통 (자동차 부품 물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943-808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설탕 가격 담합 신고 2억 1천만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

설탕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사상 최고액인 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등 총 90명에게 2억9천9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 7월 적발해 발표했던 설탕업체들의 담합건을 신고했던 개인 1명에게 2억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포상금 액수는 2005년 4월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단일 신고자에 지급한 최고액이다.

이와함께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각 신문지국에 대한 신고자들에게도 증거 및 위법수준에 따라 각각 3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